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2.10

미션  
MISSION

#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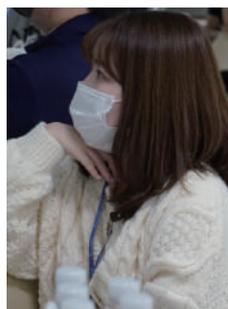
# 경영지원센터 워크숍 (10.22)



경영지원센터(재무팀, 총무팀, 관리팀, 심사팀, 원무팀, 전산팀) 전원이 10/22일 토요일 9층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병원장님의 워크숍 관련 당부사항 전달과 함께 박용택 센터장님의 워크숍 취지와 경영분석실 원가·경영 분석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팀별로 2023년도 목표과제를 발표하고, 즉석에서 과제 실천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거친 후 다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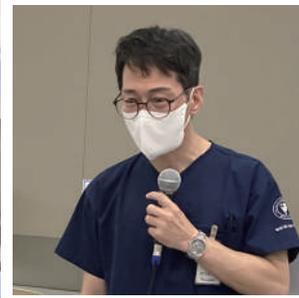




사회복지제도 -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사회사업팀 박선미 팀장 (10.01)



정신건강관리 - 스트레스, 우울증  
부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영민 팀장 (10.17)



운동 치료에 대한 궁금증 해결  
재활치료1팀 배준호 팀장 (10.29)

슬기로운  
재활생활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22 국제 암 애프터케어포럼

## 암 관리법 개정안 시행 후속정책 및 조례 마련 (10.26)

(사)쉽포에서 주관하는 2022 국제 암 애프터케어포럼이 10/26일 오후에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사)쉽포는 여성가족부 국제 NGO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경제, 의료, 여성, 재활 등의 전문가, 암 경험자 그리고 가족들을 모시고 제1회 국제 암 애프터케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 포럼에서는 한국형 암 치료 후 삶을 위한 제도와 정책 제안을 마련했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제안은 올해 2022년 5월 암 관리법 일부 법률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개혁식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애프터케어 정책의 방향과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고 동시 2개의 실무그룹 운영을 통해, 희망하는 주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약 90분간 주제별 논의를 마치고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사전에 진행한 암환자의 사회복귀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환자의 직장으로의 복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10월 6일 늦은 6시 9층에서  
내과팀원전체와  
통합진료지원센터장 그리고  
병원장님이 모여 처음으로 ‘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통합센터의 첫 시도 ‘타운홀 미팅’ (10.06)

# 내가 내 일터의 문화를 만든다는 건강한 생각으로

갈등은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갈등을 극복하려면 조직 구성원들간의 신뢰와 존중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동기 부여되며 적절한 상황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동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시스템이 무엇인지 의견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우리는 가족입니다.

## 10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7W) 이수빈 간호사



시설팀 김두호 팀장



간호팀(8W) 전소희 간호사



간호팀(8W) 김유정 간호사



소화기내시경센터 최혜지 간호사



유방갑상선센터 남혜림 조무사



브랜드실 서형기 실장



간호팀(8W) 김가은 간호사



브랜드실 남현우 파트장



조직문화성장실 고영배 지원실장



재활치료2팀 구아린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박정민 작업치료사



영양팀 김옥주 조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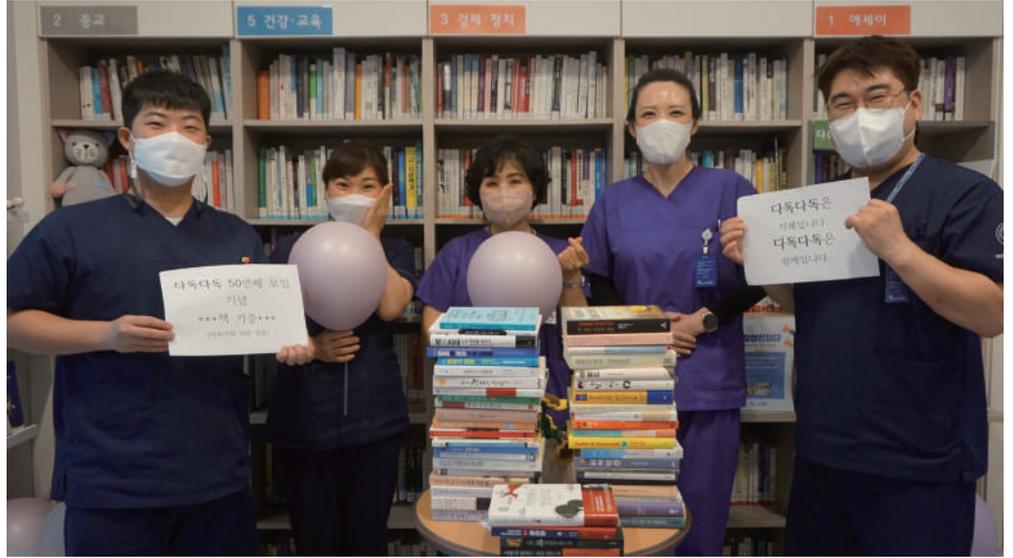
재활치료2팀 노을 작업치료사



재활치료2팀 허영재 작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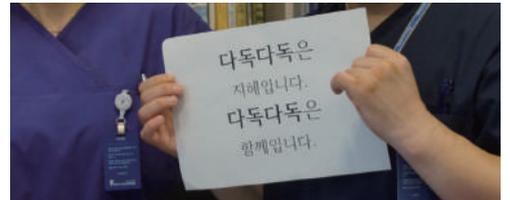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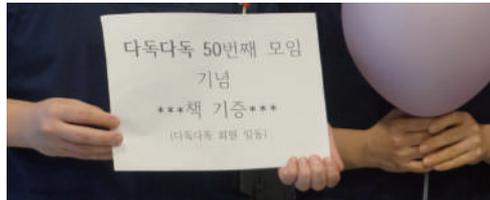
# 다독다독 50번째 모임 기념 책 50권 기증 (10.14)



병원 독서모임 '다독다독' 50번째 모임을 기념하여 책 50권을 병원 5층 행복미니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첫모임을 시작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독서모임은 순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매월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1권의 독서를 읽고 3~4문항의 발제문을 공유하며 느낀점을 이야기합니다.



나눔과행복 독서동아리 '다독다독'은 상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강제성도, 숙제도 없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O.K!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독다독 헬퍼 : 010-4875-5391]

# 장산노인복지관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에 '다독다독' 게재



## 지역 문화 소식

### 행복과 나눔 병원, 독서모임 '다독다독' "위로는 덤, 새로운 장르의 책을 접하게 된 것이 정말 좋았어요"



'다독다독' 이름으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 현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해운대 지역에서는 꽤 역사가 있고 이름 있는 독서모임이다. 행복과 나눔 병원 내 직원들이 만든 '다독다독'은 보통은 병원 안에서 모이는데 가끔은 카페나, 찻집 등에서도 모인다.

이 날은 카페에서 5~6명이 모였다. 모두 밝고 상냥한 모습이었다. 간단히 빵과 차로 저녁을 먹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책 내용과 발제문, 책을 읽은 후의 소감문 등 프린트물이 제공되었다. 그 날의 담당자가 발제문을 내는데 발제문은 보통 3~4 문항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독서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책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과 느낌들을 이야기 하였다. 독서 모임이라 어느 모임보다 폭격 있고, 즐겁고, 유익한 수다의 시간이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들이 책을 통해 교감하며 삶



에 대해 성찰과 고민을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독서모임이 시작된 계기에 대해 창립멤버인 토마생(별칭)님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지적 지평선이 넓혀지기를 원했다"고, 또 이타기(별칭)님은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독서모임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원인 케이트(별칭)님은 "혼자 책을 읽고 읽는데 한계를 느껴 참석하게 되었다"고, 포비(별칭)님은 "책을 통해 소통은 물론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좋으며, 발제문을 통해 내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2018년 5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월 1회 네 번째 목요일(병원 6층 홀) 저녁 6시에 모인다. 현재까지 47회라고 하니 그 동안 많은 지적 향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



했다. '다독다독'을 통해 회원들은 "마음의 위로와 심을 얻었다. 새로운 장르의 책을 접하게 된 것이 정말 좋았다"라고 했는데 모임 시 공식 주의사항이 있다. "함께 하는 동안 존댓말로 대화하기, 책내용에 집중하기,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 끊지 않기, 너무 길다 싶으면 레이저 발사" 매달 추천도서 이름으로 병원 곳곳에 전단지들을 붙이기도 한다. 자기 취향의 도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각의 깊이와 삶의 깊이까지도 '다독다독'에서는 특별하다. 출판계 불황이라는 말은 이제 고전적 레퍼토리가 되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거창하진 않더라도 책을 통한 즐거운 수다를 이 가을, 여기 저기 꽃피웠으면 좋겠다.

취재 문경자 기자

## 다독다독 회원이 추천하는 인생책

###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동물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



동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 동물권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학대나 동물 도살 등을 반대하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 그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동물권이다. 이 책은 동물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발사기도 하다.

폴란드와 체코의 국경 근처 추운 겨울의 고된 외딴 마을에서 기묘하게 죽은 사체들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주인공 듀세이크는 점성술에 심취한 홀로 사는 노인이다. 점성술을 통해 죽은 이들이 모두 동물들을 사냥하고 학대하던 사람들이고 사체 주변에 동물 발자국 등이 많은 점을 보며 동물들이 복수하는 거라는 주장을 하지만 많은 이들의 비웃음만 받게 된다.

듀세이크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며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면서 동물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뉴스에서 동물들을 화살로 쏘고, 팔 다리를 훼손하고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보고 간접적이거나 듀세이크의 감정을 느끼게 돼 이 책을 더욱 소개하고 싶었다.

작가 토마르 추크는 "이 세상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단일체고, 인간은 작지만 강력한 그 단일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세상은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공동체 공간임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변하게 해준 육식 섭취 최소화, 동물단체 기부 및 봉사 등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동물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다독다독 회원 포비님(별칭)

### '설득의 심리학'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설득의 명저(名著)"

2004년에 개봉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진 경험을 했었다. "아.. 우리나라 영화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정확한 줄거리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만 안다면 어떤 사기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렇게 만나게 된 책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관심 있는 '설득'과 좋아하는 '심리학'이 만난 책제목이 관심을 끌었던 듯하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도 통하는 설득의 원칙, 변화를 열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우리시대의 최고의 자기 개발서가 아닌가 싶다. "왜 우리는 쉽게 승낙하고 뒤



늦게야 후회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의 마음부터 사로잡아라".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하는 설득의 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얼마나 쉽게 설득당하고, '이처구니없이 속아 넘어가고, 또 그로 인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설득의 원칙들만 꿰차고 있어도 직장생활이나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조금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6가지 설득의 원칙을 중심으로 그 원칙들을 능숙하게 적용해 엄청난 힘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잘 담겨 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빠져들어 보자.

다독다독 회원 스킵렛님(별칭)

### 뇌 훈련 정답

1. 삼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2. 약방에 감초
3. 우물에서 송능 찾는다.
4. 뒷물이 많아야 아랫물도 많다.
5. 좋은 약은 입에 쓰다.
6.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7. 티끌모아 태산
8.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10.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기사에  
병원명을  
잘못 기재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읽으시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2022 희망세상 만들기 ‘제14회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 건강검진권 후원 (10.01)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일상 Dream 건강검진권을 후원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계층에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본원 핵심가치인 ‘함께함’을 실현하였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서 장기기증 결연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생명나눔 명상걷기대회 행사는 부산시민들에게 생명나눔 운동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인식과 함께 보다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 주거개선사업 (10.18)

##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팀은 참여자 가정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명의 참여자께서 일상속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주셨고 거주지 내·외부 맞춤형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여자 자택으로 가정방문을 나갔습니다. (사하구 당리)



# 찾아가는 서비스

## 이미용프로그램 (10/18, 10/21)



매월 특정 기간에 사전예약 신청으로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미용프로그램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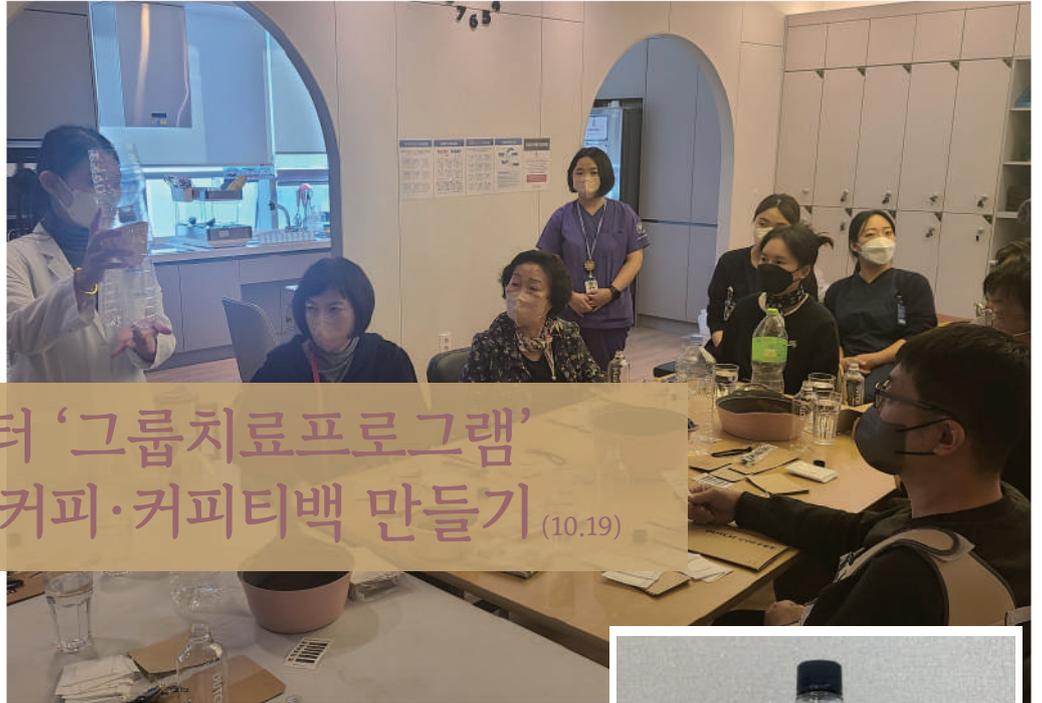
참여자분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위생과 청결은 물론 기분전환을 느끼게 됩니다.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프로그램'  
페트병 더치커피·커피티백 만들기 (10.19)



함께하는  
즐거움



이벤트 프로그램  
'내 손이 도구가 되는 암니팅 도넛방석 만들기' (10.27)



#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대회 관람 및 참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울산)  
탁구경기장 관람 (10.22)

재활치료1팀 척수손상파트

성우하이텍 2022  
부산바다마라톤대회 참가 (10.23)

재활치료2팀



# 제1회 새로고침 프로젝트 3개월 대장정 종료 (07.18~10.14)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막상 잃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게 되는 보물입니다. 저희는 직원 모두가 그 보물을 모두 함께 가지고 삶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새로고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제1회 새로고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체력증진과 병원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드리고자 하였으며 총 69명의 직원들이 참여 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50%에 가까운 선생님들께서 인바디 결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제2회 새로고침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홍보팀장의 '브런치' 여섯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나은 이유?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하라.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굳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했는지 공개한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한 일상의 다양한 장면들에서 가장 잘 나온 장면을 선택한다. 장면과 잘 어울리는 짧은 글로 그날을 기억한다. 그렇게 일상을 기록하고 메모한다.

나 역시 그 옛날 싸이월드에서부터 카카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렇게 기억나지 않은 작은 일상들을 기록했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기억은 항상 올렸었다. 머릿속 기억은 희미해져가도, 그날의 사진과 글은 또렷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흐릿해지는 기억만큼이나 열정도 흐려지니 세월이 장사가 없다. 요즘은 한 달에 1~2개 소식 전하면 나름 선방한 거다.

기억을 믿지 말고 손을 믿어 부지런히 메모하라.  
메모는 생각의 실마리,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하라.<다산 정약용>  
\_신정철<메모습관의 힘>(토네이도)

'기억을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내 마음을 움직인 문장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메모하기 시작한 것은 이 책을 읽고 난 뒤였다. 5년 전쯤 《메모습관의 힘》을 읽었고, 나도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읽은 책들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읽은 책들 중 와 닿은 문장은 반드시 노트로 옮겨 적었고, 그런 다음 정리가 되면 컴퓨터로 정리해서 출력해서 그 위에 덧 붙였다. 적기도 하면서 타자도 치면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편리한 시대에 볼펜으로 직접 적는데도 한계가 왔다. 솔직히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나 자신과 타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키보드로 메모하는 것으로 협상하였다.

읽은 책에서 건진 문장을 정리하고, 그 중 명문장은 빨간색으로 색을 입힌다. 간단한 내 생각은 파란색으로 몇 줄 적고, 그 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초록색으로 마무리 한다. 여기에 엑셀에 간단히 책 읽은 날짜와 책에 대한 정보, 간단한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책과 이별을 한다. 언뜻 보면 책 한권 읽고 이렇게나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이런 메모가 쌓이고 쌓이면서 소중한 내 자산이 됨을 요즘 더 실감하고 있다. 어떤 책은 단 한 줄도 못 건질 때도 있고, 어떤 책은 너무 많이 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책도 파악이 되고, 좋아하는 작가 유형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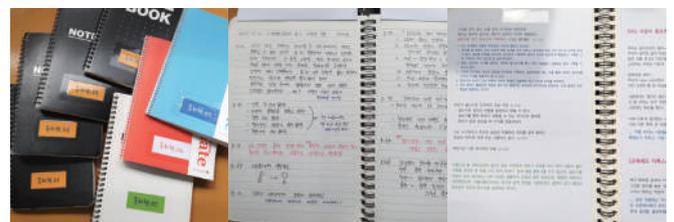
이런 메모는 자연스런 글쓰기로 이어진다. 나는 직장인 병원에서 홍보기획팀에서 일한다. 업무 특성상 크고 작은 글쓰기를 반복한다. 벽면 게시판에 붙는 짧은 안내문에서부터 제법 긴 호흡을 해야 하는 직장블로그,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편지 형식의 인사글 등 다양한 글들에 인용한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팀 여직원과 나는 그렇게 한 명은 글로써 병원을 그리고, 한 명은 경험의 물감으로 병원을 색칠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가 글쓰기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의 빈틈을 발견할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메모는 글쓰기를 통해 세상으로 유통되고 지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작은 메모가 글로써 완성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고 했다.  
언젠가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온다.  
\_이유미<문장 수집 생활>(21세기북스)

사소한 메모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우리 기억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보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넘쳐나다. 이때 메모를 통해 그 순간의 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메모해놓자.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고 하지 않는가. 일상의 작은 메모가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다.

메모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이니깐.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편집인 홍보기획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http://www.snh.or.kr>